

나쁜냄새(구취)의 원인과 치료



김 중 렬

입냄새는 질병이라기 보다는 한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환자가 받는 고통은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심각한 것이며 특히 여러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는 사회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인들에게는 불쾌한 입냄새는 가장 큰적이라고 할 수 있어 실로 질병에 못지 않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도 내쉬는 공기에는 미약하고 약간은 감미로운 냄새를 띠고 있으며 하루중에서도 때에따라, 침의 유출량, 구강내의 상주세균수에 따라, 혹은 월경과 같은 생리적상태에 따라서 다소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도 입냄새의 강도가 높아지며 낮이나 저녁보다는 아침

에, 보다 짙은 냄새를 보이는 경향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악취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쁜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있기 보다는 좀 더 중요시 해야할 점들을 갖고 있다. 예를들면 잇몸병을 가진 사람의 침은 건강한 사람의 침보다 훨씬 빨리 부패하므로 잇몸병이 있는 환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도록 입안에 잔류된 상피 및 음식물잔사의 부패와 수면중의 침 유출량의 감소로 인한 부패축진으로 심한 악취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입냄새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잇몸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하여 정확한 원인파악이 필요하다. 불쾌한 입냄새를 야기시키는 원인은 구강외적원인과 구강내적원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구강외적원인은 흔히 축농증으로 불리는 만성부비강염과 같은 상기도의 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농양, 악성종양과 같은 호흡관, 기관지및 폐에 괴양성괴저성질환의 발생 또는 냄새를 갖은 물질들이 혈행내에 함유되어 호기로 이행되는 경우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혈행내에 냄새를 갖은 물질이 함유되는 경우로서는 양파나 마늘 같은 음식, 술,

옥소가 함유된 약을 먹음으로서 위장관을 통해 순환혈액에 내보내지는 물질이 들어가는 경路和 혈액중에 함유된 어떤 성분이 비정상적인 량으로 축적되는 경우, 또는 혈액내에 비정상적으로 어떤 물질이 함유케되는 대사부전증의 경우등을 들 수 있으며 암모니아냄새, 아세트냄새등을 나타낸다. 구강내적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을 살펴보면 탈수 또는 심한 정서적 불안 긴장 등 타액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경우나 위궤양환자와 같이 우유크림 같은 유동식을 식사하여 저작에 의한 자정 작용같은 구강의 생리적 기능에 결함을 가져온 경우, 불결한 구강 위생상태, 치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보철물, 교정장치, 치아우식증, 맹출중에 있는 치아 주위에 생긴 가성치주낭등에 음식물의 저류가 있을때, 치아주위 조직질환에 이환되어 치주낭으로부터 고름이나 부패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당뇨병성피저나 백혈병, 악성종양등의 수술후와 같이 어떤 원인으로 구강내에 출혈이나 조직괴사와 관련된 경우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들중 특히 가장 빈도가 높고 중요한 것은 치아우식증(충치)과 잇몸및 치아 주위조직병의 이환인 것이다. 이상의 원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쁜 입냄새는 일반내과적인

영역과 치과적인 영역에 걸쳐 원인이 다양하므로 진단 및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서는 일반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치과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감별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감별을 하는 간단한 방법의 하나로서는 입술을 꼭 다물고 코로 세차게 뽑은 공기에서 냄새가 나면 폐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구강외적 구취는 구강외의 질병과 관계된 것이므로 일반의사의 치료를 받아 근본적인 원인질환을 치료받아야 될 것이다. 구강내적원인에 의한 나쁜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선 구강위생상태를 개선,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구강내의 충치 및 잇몸병등의 구강질환을 치료받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한 깨끗한 구강상태를 위한 기초수단으로서의 올바른 치솔의 선택 및 사용이 요구되며 치솔만으로는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개방성 치간부및 치주낭을 위하여는 소위 치간 자극기를 사용한 다든지 치과용 실을 사용 또는 치과양추액을 사용하며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시술받아 치석 제거를 통하여 항상 구강내의 원인요소들을 제거하고 또한 혀의 청결에도 힘쓴다면 우리는 입안에서 날 수 있는 나쁜 입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대한구강내과학회총무·의박〉